



#### 우물 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저자 마크 피터슨, 신채용  
출판 지식의숲  
발매 2022.11.05.

저자 마크 피터슨은 유튜브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 한국학 박사라는 점에서 놀랐고, 이 사람이 조나단이나 레오처럼 성장기에 한국을 접한 TCK(Third Culture Kids)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놀랐습니다.

#### 우물 밖의 개구리 The Frog Outside the Well

저는 처음 한국에 54년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학공...

[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

마크 피터슨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하는 한국학에 대한 관점은 새로웠고, 관련하여 낸 책이 있다가에 찾아 읽게 되었네요. 여담이지만 근래 한국 방문하셨을 때 직접 만나러 나가볼까 생각도 했다가, 일정도 겹치고 그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서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마크 피터슨 교수의 한국과 한국사 사랑이 그대로 담긴 책입니다. 다만 책이 좀 더 잘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들어가며'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한국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사라고 보

는 이유 10가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한국의 왕조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왕조 간 권력이 원활하게 이양되었다
3. 한국은 상대적으로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4. 한국은 삼국 시대 이후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5. 압록강이 한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6. 한국의 왕릉은 도굴되지 않았다
7. 한국 역사에는 선비가 계속 존재해왔다
8. 중앙정부 체제에서 문신 중심으로 군에 대한 통제를 이어왔다
9.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랜 노비 보유 사슬을 가지고 있다
10. 한국에는 김, 이, 박씨가 많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마다, 결국 우리 민족은 매번 외세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내고 침략에 맞서기만 하는 약소국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해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와중에 한국을 평화와 안정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 주장하는 마크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며, 납득할 만한 근거까지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역사에는 명과 암이 공존하고, 배워서 발전시킬 점과 배워서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하며 머리에 남은 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그것에 맞서 애쓴 엘리트, 위인 몇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통일신라 이전의 거대한 고구려와 발해, 기원전 233년까지 올라가는 단군신화가 우리가 영토상으로도 넓고 강한 나라인 시절의 기억인데 그건 뭔가 속된 말로 짜치더라고요. 가까운 역사가 아닌 워낙 먼 과거 비교적 짧은 시기 이야기다 보니, 일반적인 한국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 나이 또래들에게 한국사는 앞서 말했듯 약소국으로서의 기억과 일부 위인의 고군분투, '하드 캐리'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국민보다는 위인 몇 명이 위태로운 국가를 지켜온 사회. 이 기억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평화와 안정의 역사를 가진 한국사의 좋은 면을 가릴 정도로 뇌리에 너무 크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아쉬움을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역사는 자국 내 다른 시기와 다른 국가와의 '비교', 전체 기간에서 넓게 바라본다는 시각에 맞게 한국사를 해석합니다. 그 해석 스타일이 책의 모든 장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일관성은 이 책이 은연중에 자신감을 비치는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 중 독자가 원한다면 거꾸로 읽든 중간에서 읽든 이 주제 저 주제 넘나들든 좋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읽든 볼 수 있는 이 책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공통 테마 또는 줄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입니다. 어디서 어떤 순서로 읽든 이 책의 모든 장은 한국인에 대한 예찬이 담겨있다. 그것도 막연한 찬양이 아닌 다양한 근거와 때로는 조금의 비판도 포함된 예찬이. 내용도 좋지만 이러한 구성이 저는 특히나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관성이 다르게 보면 같은 내용의 반복이고, 이것이 지루함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책을 읽으며 한 나라의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 뿐만 아니라 타국 역사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내 느꼈습니다. 지금껏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만을 놓고 한국사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은 3부 20장으로, 각 장에는 한국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인 이유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신채용 교수가 짧게 묻고, 마크 피터슨 교수가 길게 답하는 형식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장을 읽고 남겼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 최종적으로 책의 총평을 남겨보겠습니다.

해외 국가의 성씨 편중과 한국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사를 평화로운 역사라 주장하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사만 배워서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라 좋았다. 베트남에서 응우옌 성씨가 압도적인 이유에 대해 알게 된 건 덤이었고요. 베트남은 이러한 성씨 편중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마지막 왕조의 성씨를 하사받고 보복이 두려워 유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식민 통치 시절 성씨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씨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압록강 국경선이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전에 역사를 배우면서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쟁 관련 이야기도 좋았고요. 대부분의 역사는 몰라도, 저는 역사를 접할 때 전쟁 역사관적 접근 방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를 배울 때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당시 왕조나 주요인물의 특징을 배웠는데 그 주요 사건 대부분이 전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시점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토 바뀌고 왕조 바뀌는 게 보통 전쟁에서 기인하니까 역사하면 전쟁을 빼놓을 수 없는 게 맞긴 하지요. 다만 전쟁만 놓고 보면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에, 책 말마따나 의도적인 경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최훈의 '삼국전투기'처럼 국가보다 영웅담과 영토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전쟁 중심으로 역사를 읽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쟁 이외의 요소인 통치 방식, 문화 등에도 균형 있게 초점을 두고 역사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이라는 민족 정서에 대한 생각도 일부 공감했습니다. 한이 식민사관이라는 말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한국인들이 한을 주된 민족 정서로 갖기 보다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흥도 좋고 정, 평화와 안정, 칼보다 펜을 사랑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기꺼이 칼을 드는 그런 정서를 민족 정서로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배와 설움의 역사로 한국사를 기억하기엔 놓치게 되는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만으로 한국을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노래방과 길거리에는 애잔하고 절절한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흥겨운 아이돌 음악도 울려 퍼집니다. 과거는 사라졌어도 수능과 수능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시험의 악몽은 여전하고요!

유교와 선비에 대한 접근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중국식 사대주의가 아닌 17-18세기 이전 인의예지, 삼강오륜, 충과 효 등을 이상으로 다룬 '한국식 유교'에 담긴 좋은 것들을 현대에 와서도 받아들이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가 최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접하는 유교나 선비라는 단어는 곧대, 남존여비, 남녀칠세부동석 등 고리타분함과 금욕주의 따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남기되, 유교에 대한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배척 대상으로 삼기에 유교가 가진 공이 큼니다.

칼보다 붓을 먼저 들 수 있도록 이들을 대우하는 안정적인 중앙집권화 왕권 시스템이 있었고 그 선진화된 형태가 지금에까지 이어져왔다는 걸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일본이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당연한 일인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시선이기에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헬조선 같은 밈과 관련된 표현에 웃고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자주 쓰이는 것을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헬조선이라면, 제가 쓰는 언어는 헬조선의 언어, 저는 헬조선인. 결국 스스로를 자독하게 깎아내리는 표현현일 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마따나 이 나라에 있을수록 손해인 꼴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애국심 식히기 딱 좋은 표현이지요.

그렇다고 한국 찬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점은 비판하되,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 무용론을 제기하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미 노력하고도 상처를 입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며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분들은 떠나서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거나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면 내가 사는 나라 비판하면서도 더 나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노력해야지요. 뭐 대단한 노력이랄 것도 없습니다. 한국사 돌아보고 지금에 와서 좋은 점 계승하고 나쁜 점 반복되지 않게 정치/사회에 관심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살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윈윈 아니겠습니까? 이상적인 담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성씨로 왕조 간 계승 과정의 평화로움을 증명하듯 본관으로 17, 18세기 이전 한국식 유교에서 여성의 시집뿐만 아니라 남성의 장가가 이례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초의 조상인 시조가 살았던 자신의 본관을 떠나 살고 있는데, 이 책은 이것을 조선사회가 처음부터 부계사회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남편이 장가를 가면 아내의 집안에서 자란 후손은 본관을 떠나 살게 될 테니! 물론 전쟁으로 인한 피난, 상경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 대부분이 본관을 떠나 산다는 건 충분히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부전을 한국 사회 유교 변화 과도기에서 자라난 상속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문학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비롯해 교훈적 문학작품이라 알려진 춘향전, 심청전 같은 다른 판소리 문학을 다르게 읽는 것도 좋았고요.

족보에 대한 편견도 이 책을 읽으며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족보를 조선 후기 역사를 배울 때 배운 공명첩, 족보 매입 등의 사건을 근거로 크게 의미 없는 사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마구 거래돼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차 검증 결과도 좋고, 관련 연구 내용을 읽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계승된 족보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조를 한국 문화 세계화 방안으로 제시하는 건 흥미로웠습니다. 낡은 문화로 여겨지지 않도록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란 쉽지 않은데, 읽어보니 시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시조 관련해서 정몽주의 '단심가' 에피소드와 해외의 시조 대회 수상작을 언급하는데, 확실히 시조라면 현대에 와서 어떤 언어로 쓰여도 그 감상을 향유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조를 직접 쓰기보다 보통 과거 시조를 해석하는 일이 많은데,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쓰고 관련하여 대회도 많이 열고 해서 하이쿠나 태권도처럼 해외에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필로그는 12페이지 분량인데, 인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중 인상 깊은 구절 몇 개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과서에 실리기를 원하는 한 문단은 바로 한국의 유교는 17세기 후반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 후기에 한국 유교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 남성 지배 사회구조
-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 강화
- 장남과 종손 개념의 부상
- 가정에 친자가 없는 경우 양자 상속인 입양
- 모든 아들과 딸에게 평등하게 물려주던 상속제도가 장자 상속(장남이 모든 재산을 통제)으로 변화
- 자유롭고 균형 잡힌 결혼 방식(시집간다와 장가간다가 모두 통용)이 완전한 부계 결혼 관행으로 변화

내가 '중국식 유교화'라고 부르는 이 나쁜 변화는 167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것은 나쁜 방향으로의 사회적 혁명이었다.

피터슨 교수님이 교과서에 실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들을 인용으로 옮겨봤습니다. 우리가 계승하여 발전시켰으면 하는 한국식 유교가 있던 기간을 짚어주고,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좋은지 알려준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1965년의 한국을 본 다음 2022년의 한국을 보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역할이라면, 1965년의 '여기 한국'과 2022년의 '여기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역사라면, 1965년에 쓰여진 한국의 역사가 2022년에 쓰여진 한국의 역사와 같을 수가 없다.

263p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1965년의 한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한국이 이룬 성과, 독특함, 우수한 능력을 설명해 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강하고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질문을 해야 한다.

264p

역사는 재검토, 재분석, 재평가될 수 있으며 지금을 위한 한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정치적이고 민감한 소재일 수 있음을 알지만, 지금의 역사 교육은 우리의 어떤 점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고 지금의 한국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되짚어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한국학 박사님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인인데, 이 외국 선비 할아버지에게 역사를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책을 읽고 한국사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입니다. 참고로 마크 피터슨 교수의 한국 이름은 배도선, 호는 서양에서 온 선비라는 뜻의 서유라고 합니다.

뭔가 쓰다 보니 비판적인 시선이 적고 추천사만 길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좋게 읽어서 그런 듯 합니다. 읽는 이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이 책을 지인들에게 전부 권하고 싶을 정도로 잘 읽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읽든 간에 한국과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발전시키는 데 영감을 주는 책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